

국제 스포츠 외교로 올림픽 유치 기반 강화

우범기 전주시장, 싱가포르 방문해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글로벌 인프라 벤치마킹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인 전주시가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유치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World Aquatics Championships)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 스포츠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에 집중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 스포츠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에 집중했다.

전주시 대표단은 지난 30일에는 다 이빙과 경영, 아티스틱스위밍 등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주요 종목 경기를 참관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또 대회의 운영 방식과 관중 편의시설, 선수 지원 동선, 의전·수송 체계 등 전반적인 대회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이는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립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향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범기 시장은 이날 정장훈 대한수영연맹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수영계와의 협력 체계를 확고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우 시장은 지난날 31일에는 후세인 알 무살람(Hussein Al-Musallem) 세계수영연맹(WA, World Aquatics) 회장을 만나 전주시의 국제수영장 건립 계획과 복합스포츠타운 기반 인프라, 향

후 국제 수영경기 및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후세인 세계수영연맹 회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대 의지에 관심을 나타내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일정 중 흥진옥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면담하고 외교적 지원과 국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민간 네트워크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단은 글로벌 의료·보건 지원 기관인 인터내셔널 SOS 싱가포르 사무소를 방문해 대규모 국제행사 시 보건·안전 대응체계에 대해 정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시가 추진할 다양한 국제행사 시 운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싱가포르 출장을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은 물론, 수영계 핵심 인사들과의 교류도 이뤄진 만큼 향후 전주가 국제 스포츠도시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전주는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전주국제 올림픽 유치를 향한 준비를 더욱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완주군 13개 읍면을 찾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들, 완주 속으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공감대 확산 위해 13개 읍면 찾아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완주군 13개 읍면을 찾고 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지역 동향 파악을 위해 각 부서별로 완주군을 방문해 회식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어진 이 행사에는 4일 현재까지 총 79개 부서 10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완주군 13개 읍면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완주군 오일장 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등 완주군 민들과 접촉하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홍보에 임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완주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 중 완주·전주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 완주와 전

주가 만나는 주요 교차로에서는 출근길 통합 캠페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계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산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이동 우이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화동 승암교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총 1543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역 28개 민간단체 회원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의 시민이 호남제일문 광장에 모여 통합을 향한 염원을 담은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8월분 신청·접수

전주시는 오는 8월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8월분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

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

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해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 폭넓게 설정됐다.

대출은 전주시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자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

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항로 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fanhr@korea.kr) 또는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각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관광재단, 18일까지 사무국장·팀장 채용 공모

전주시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인 '전주관광재단'을 이끌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다.

(재)전주관광재단은 오는 18일까지 사무국장과 팀장 2명(관광콘텐츠 팀장, 관광마케팅 팀장) 총 3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4일 밝혔다.

먼저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 경력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 경력 등 하나

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팀장의 경우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응시원서와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관광재단TF팀 인사담당자(070-4900-8004)에게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 호성중 뜨개질 봉사부, 뜨개 용품 판매 수익금 기부

전주 호성중학교(교장 최돈호) 뜨개질 봉사부는 4일 직접 만든 손뜨개 제품 50여 개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만원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에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1~3학년 총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뜨개질 봉사부는 이번 활동을 위해 제작한 수세미, 키링, 가방 등의 50여개의 뜨개 용품을 자체 판매회 수익금을 마련하였으며, 전달된 수익금 2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호성동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에 참여한 김모 학생은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을 누군가가 사고, 그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해야겠다는 느꼈으며, 어려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문구 호성동장은 "호성중학교 뜨개질 봉사부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들이 주관이 되어 실천한 이 나눔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실천이 이어질 바란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4일 최명권 의원(송천1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 4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로 신설, 보수 및 골차 등 각종 공사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